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5. Vol. 27, No. 4, pp.51-65
ISSN 1225-1488
http://dx.doi.org/10.19031/jkheea.2015.12.27.4.5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의 영향력

윤선영* · 신효식** · 이선정**[1)]
유덕중학교*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생활과학연구소**

The Relationships of Family Strength and Creative Personality to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Yun, Seonyoung* · Shin, Hyoshick** · Lee, Seonjeong**[1)]
*Yudeok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 creative personality, and career maturity. This subjects were the 508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ANOVA, duncan 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PC 18.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strengths, creative personality, and career maturity were higher than median(3.00).

Second, career matur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ll of family strength(family respect and affection,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financial stability) and part of creative personality(self-conviction, perseverance/tenacity, openness of thinking, curiosity).

Third, th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was influenced by self-confidence and humor. And th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was explained about 26% by these variables.

The outcomes indicated that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affected by creative personality.

Key words: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창의적 인성(Creative Personality),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1) 교신저자: Lee, Seonjeong,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0, Fax: 062-530-2529, E-mail: overwhelming@hanmail.net
2) 본 논문은 2015년도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Ⅰ. 서 론

진로 선택은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에게 진로선택은 장차 펼쳐질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며, 현명한 직업 선택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산업과 직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예비사회인인 청소년들은 사회변화에 맞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자아 탐색과 진로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특기, 소질 보다는 교과 성적이나 부모나 교사 등 제 3자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Kim, 2003).

최근 진로 교육과 진로 발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교육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의 목표에 의하면, 기술가정 교과는 노작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 설계를 포괄하는 생애를 설계하는 진로 개발 능력, 실천적 자기 관리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르는 핵심 교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 '가정 생활' 영역의 핵심 역량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학습자가 자기관리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기술·가정 교과에서 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서도 진로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진로와 직업이라는 선택교과를 이수하게 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분야로 진로활동 시간을 구성, 혹은 전문 진로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로에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 즉 직업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직업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요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기이므로 진로성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yu & Lee, 2013).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갖지 못할 경우, 이후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잦은 진로 변경 및 이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진로성숙도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3). 진로성숙이란 개인의 자아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계획 및 탐색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과 인식 및 능력을 의미한다(Koo & Park, 2007).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미래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과업들에 대해 잘 대처하며 진로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Jung, 2011).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관심 및 준비 행동에 대한 성숙 수준은 현대 사회를 잘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Ryu & Lee, 2013).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직업지도의 핵심적 개념인 진로성숙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진로상담과 학교의 진로지도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Lee & Lee, 2013).

진로 교육·진로 발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학교교육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심리학 및 상담학과 교육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내적 변인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Park, 2009).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 인격형성의 기본 틀이 이루어지는 곳인 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바른 성장에 가장 중요한 환경임을 강조하고 있다(Yang & Yu, 2003). 건강한 가족은 미래의 긍정적 성장과 변화의 기초가 된다. 나아가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 즉 건강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Yu, 2001).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건강성은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Park(2007), Park(2009) 등은 건강한 가

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im(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으며,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가족건강성 중 문제해결력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 Song (2006)은 부모와 상호 신뢰, 원활한 의사소통 및 애정적 관계를 형성한 중학생은 진로에 대한 의식도 성숙되어 있다고 하였다.

Maslow(1998)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살며 자아실현을 한다고 하였다. Csikszentmihalyi (1990)는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며, 즐기고 그 일에 굉장히 몰입하여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여 직업생활은 창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대 사회 또한 산업 및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발전해 내는 창의적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결국 진로탐색이나 선택에 있어 창의성이 개인적 특성이건 사회적 요구이건 간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i, 2015). 창의적 인성은 창의성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으로 창의적인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창의적 성격이나 동기적 특성을 말한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호함을 잘 견디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내적동기, 개방성, 자신감, 유머, 인정의 욕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ark, 2003).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Yoon(2010)이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의 각 하위 요인을 상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창의적 인성 중 호기심과 자기 확신이 진로성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Ryu와 Lee(2013)는 창의적 인성 중 탐구심, 과제집착, 무일치무질서 참기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Bae, 2015; Hong & Yoo, 2008; Kim, 2010; Lee & Lee, 2013; Oh, 2012; Shin & Chun, 2015; Song, 2009)는 자아효능감,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심리적 요인과 가족관련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Choi, 2015; Han, 2013; Lee, 2011; Lee & Hyon, 2003; Park & Kim, 2009)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단편적인 가족관계를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의적 인성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고, 가족건강성은 가족 내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이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을 동시에 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가족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 중에 어떠한 요인이 진로성숙도와 더 연관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은 진로지도의 방향과 진로교육의 내용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 진로성숙도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중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진로성숙도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 알고 직업에 대한 정보탐색을 통해 진로선택을 준비하는, 개인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 인생의 성공 여부는 미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남과는 다른 나만의 모습을 인식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등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성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더욱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Kang, 2011).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

택을 통합하고 조정해 나가는 능력으로 개인이 발달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독립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상대적 정도라고 할 수 있다(Yoon, 2010).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이론에 의거해, Super(1951)에 의해 개인이 속해 있는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과업의 준비도라는 의미로 개념화 되어 발달하였다. Gr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았고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하였다(Kim, 2010). 진로성숙도는 태도 요인과 능력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태도 요인은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이며 능력요인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계획, 문제해결 등이다(Crites, 1978).

2.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면, 가족의 건강성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ark, 2007; Park, 2009). Yang과 Hong(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하위영역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가족건강성은 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어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Lee(2011)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가족원의 문제 해결 수행 능력은 진로성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가족건강성의 문제 해결 수행 능력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말한다. Kim(2013)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가족건강성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족건강성 중 문제해결력 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Park(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족건강성의 하위 요인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었다.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의 각 하위 요인을 상관분석한 Yoon(2010)의 연구에서 창의적 인성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되었다.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들 중 호기심은 진로성숙도의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호기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진로 문제 전반에 걸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자기 확신은 성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기 확신이 높은 개인은 진로의 선택이나, 진로에 대한 준비, 현실과의 타협 등 진로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내 집착은 진로성숙도의 총점과 결정성, 관여성 그리고 타협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일을 끝마치려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능동적인 탐색과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자율적인 동기나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과 정적 상관이 있다(Park, 2002; Whang & Lim, 2004).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은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 3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4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신뢰도, 요인분석 후 문항수정을 거쳐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배포된 550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50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Yu(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토대로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08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Gender (n=508)	Male	232(45.7)	Standard of living (n=502)	High	201(40.0)
	Female	276(54.3)		Middle	276(55.0)
				Low	25(5.0)
Father 's education achievement (n=481)	High school and less	129(26.8)	Mother's education achievement (n=477)	High school and less	160(33.5)
	University grad	316(65.7)		University grad	285(59.7)
	Graduate and more	36(7.5)		Graduate and more	32(6.8)

재구성한 Lee(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존중 및 애정'에 관한 12문항,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에 관한 6문항, '의사소통 및 유대감'에 관한 5문항, '재정적 안정'에 관한 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가족존중 및 애정 .95,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90, 의사소통 및 유대감 .85, 재정적 안정 .89이다.

2) 창의적 인성

창의적 인성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의 창의적 인성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어 연령별 타당화 과정을 거친 Ha(2001)의 창의적 인성검사(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 문항으로 요인 분석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Varimax로 직교회전을 하여 .5보다 높은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을 나타낸 21항목을 추출하였다[Appendix 1]. 먼저, 요인 1은 자기확신으로 자신의 창의적 능력과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이고, 요인 2는 유머감으로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많이 생성하려는 성향이다. 요인 3은 인내/끈기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제를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고, 요인 4는 사고의 개방성으로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이며, 요인 5는 호기심으로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인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자기확신 .82, 유머감 .87, 인내/끈기 .76, 사고의 개방성 .73, 호기심 .67이며, 전체 신뢰도는 .88이다.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Lee와 Han(1997)의 진로성숙도검사 태도척도 47문항으로 예비조사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Varimax로 직교회전을 하여 .5보다 높은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을 나타낸 20항목을 추출하였다[Appendix 2].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86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 조사 후 문항 수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 확인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와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Examining the general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strength, creative personality, and career maturity

N=508

Scale	Variables	M	SD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3.80	.75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3.55	.76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3.42	.86
	Financial stability	4.01	.77
	Total	3.70	.68
Creative Personality	Self-conviction	3.54	.76
	Humor	3.06	.91
	Perseverance/tenacity	3.00	.75
	Openness of thinking	3.46	.84
	Curiosity	3.37	.57
	Total	3.28	.52
Career Maturity		3.33	.54

Ⅳ. 연구 결과

1.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 및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 및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가족건강성은 '재정적 안정'이 4.01, '가족존중 및 애정'이 3.80,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3.55,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3.42로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특성에 비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창의적 인성은 '자기 확신'이 3.54, '사고의 개방성'이 3.46, '호기심'이 3.37, '유머감'이 3.06, '인내/끈기'가 3.00로 중간값(3.0)보다 높거나 같았다. 자기확신이 가장 높았고, 인내/끈기가 가장 낮았다.

진로성숙도는 3.33으로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성숙도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1)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진로성숙도는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 영역인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과 가족건강성 전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와 문제해결력이 낮은 집단의 진로성숙도는 낮았고,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 가족건강성 전체가 높은 집단의 진로성숙도는 높았다.

2)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진로성숙도는 창의적 인성 변인의 하위 영역에 따라 자기 확신, 인내/끈기, 사고의 개방성, 호기심, 창의적 인성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머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기 확신, 인내/끈기, 사고의 개방성, 호기심, 창의적 인성 전체가 상인 집단의 진로성숙도는 높았다.

Table 3. Examining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family strength

N=508

Variables	Category	N	M(SD)	Duncan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High	154	3.44(.57)	a
	Middle	188	3.34(.53)	a
	Low	166	3.22(.48)	b
	F		6.83**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High	166	3.44(.57)	a
	Middle	142	3.39(.55)	a
	Low	200	3.20(.54)	b
	F		10.99***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High	142	3.46(.56)	a
	Middle	241	3.31(.51)	b
	Low	125	3.22(.54)	b
	F		6.84**	
Financial stability	High	180	3.46(.60)	a
	Middle	172	3.32(.50)	b
	Low	156	3.19(.54)	c
	F		11.53***	
Total	High	150	3.49(.58)	a
	Middle	197	3.33(.51)	b
	Low	161	3.18(.48)	c
	F		14.34***	

** p<.01, *** p<.001, Duncan grouping : a>b>c
High≥M+½SD, M-½SD<Middle<M+½SD, Low≤M-½SD

Table 4. Examining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creative personality

N=508

Variables	Category	N	M(SD)	Duncan
Self-conviction	High	157	3.65(.60)	a
	Middle	201	3.28(.43)	b
	Low	150	3.06(.41)	c
	F		59.76***	
Humor	High	130	3.38(.55)	
	Middle	222	3.32(.52)	
	Low	156	3.31(.54)	
	F		0.61	
Perseverance/tenacity	High	162	3.46(.60)	a
	Middle	177	3.29(.48)	b
	Low	169	3.25(.50)	b
	F		7.42**	
Openness of thinking	High	156	3.45(.60)	a
	Middle	220	3.29(.52)	b
	Low	132	3.25(.45)	b
	F		6.16**	
Curiosity	High	154	3.49(.59)	a
	Middle	229	3.23(.46)	b
	Low	125	3.32(.56)	b
	F		10.94***	
Total	High	153	3.52(.57)	a
	Middle	208	3.32(.52)	b
	Low	147	3.14(.44)	c
	F		20.50***	

** p<.01, *** p<.001, Duncan grouping : a>b>c
High≥M+½SD, M-½SD<Middle<M+½SD, Low≤M-½SD

3.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에 걸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는 1.29-3.44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 Ⅰ은 가족건강성 변인인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 재정적 안정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8.16, p<.001). 가족건강성 중 재정적 안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16, p<.01). 즉 중학생이 가족의 재정적 안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았다.

모델 Ⅱ는 모델 Ⅰ에 창의적 인성 변인인 자기확신, 유머감, 인내/끈기, 사고의 개방성, 호기심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에 전체 설명력은 26%로 증가하였으며, 창의적 인성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20%로 나타났다. 창의적 인성 변인 중 자기확신(β=.54, p<.001)과 유머감(β=-.1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의 창의적 능력과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많이 하려는 성향이 낮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았다. 하지만 창의적 인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재정적 안정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상쇄되어 없어졌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청소년 진로성숙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진로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재정적 안정 4.01, 가족존중 및 애정 3.80,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3.55, 의사소통 및 유대감 3.42 순으로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재정적 안정 정도는 높게 인식하지만 의사소통

Table 5. Examining influence of family strengths and creative personality on the career maturity

Scale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B	β	B	β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06	-.09	-.06	-.09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09	.13	.02	.02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05	.08	.02	.03
	Financial stability	.11	.16**	.04	.06
Creative Personality	Self-conviction			.38	.54***
	Humor			-.09	-.15***
	Perseverance/tenacity			-.01	-.01
	Openness of thinking			.03	.05
	Curiosity			-.04	-.06
R^2		.06		.26	
F		8.16***		19.08***	
DW		1.97		1.85	

**p< .01, ***p< .001

및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Lee(2012), Hong(2013)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가장 낮게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대체로 높으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 Song(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부모와 30분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이 아버지와는 42.1%, 어머니와는 22.4%인 것으로 나타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또래집단간의 의사소통에는 익숙하지만 집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창의적 인성은 자기 확신 3.54, 사고의 개방성 3.46, 호기심 3.37, 유머감 3.06, 인내/끈기 3.00 순으로 중간값(3.0)보다 높거나 같았다. 자기 확신이 가장 높고 인내/끈기가 가장 낮았다. 진로성숙도는 3.33으로 중간값(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는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 영역인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과 가족건강성 전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할 때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는 창의적 인성 변인의 하위 영역인 자기 확신, 인내/끈기, 사고의 개방성, 호기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인성 전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창의적 인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 확신, 인내/끈기, 사고의 개방성, 호기심이 높을 때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셋째,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창의적 인성의 하위영역인 자기확신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머감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들은 진로성숙도를 26% 설명해주고 있다.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2013)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Ryu와 Lee(2013)의 연구에서는 호기심과 인내/집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Choi(2015)는 창의적 인성 중 유머감과 모험심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혀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이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의적 인성의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단계에 따라 직업선택을 위해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진로발달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발달단계별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진로성숙도에 대한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한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Park(2007), Park(2009)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가족의 건강성 정도는 청소년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창의적 인성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적 인성을 투입하지 않은 단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에서는 재정적 안정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의적 인성을 투입한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소멸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인성 중 자기확신은 진로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적성이나 흥미 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다. 즉, 자기 확신을 통해 진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안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의 관심사와 흥미, 적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학교는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이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가족건강성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족은 자녀들의 강점을 찾고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건강한 가족 속에서 성장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의 진로탐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창의적 인성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정적 안정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창의적 인성을 투입한 모델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창의적 인성이 가족건강성보다 진로성숙도에 더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청소년의 창의적 인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다면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갖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표본 설정에 한계가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대상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학년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투입되는 진로교육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가정과교육은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 역량을 기르는 핵심 교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과를 통해 학습자가 자기관리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능동적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과교사는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ae K-H (2015). *The effects of ego-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of their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Nam, Korea.

Choi J-W (2015). *The effect of creative personality and positive thinking on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Choi M-K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irrational belief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3), 287-321.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a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 McGraw Hill.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 Harper & Row.

Ha J-H (2001). The study of validation of 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 by age and development of creative person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 323-351.

Han S-M (2013).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arent support upon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Hong H-Y & Yoo T-M (2008). Analysis of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elf-ident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49-64.

Hong S-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upport, family strengths and self-control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Jung M-N (2011).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Kang K-S (2011).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career education unit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8), 113-124.

Kim G-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Nam, Korea.

Kim K-M (2010). *The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with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of Education, Daegu, Korea.

Kim S-A (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Kim Y-J (2013).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of high school students to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 Buk, Korea.

Koo S-S & Park S-H (2007). A study of elementary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he related variable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1), 119-131.

Lee J-H & Lee J-M (201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5), 19-32.

Lee K-H & Han J-C (1997). The validation of career attitude inventor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Lee K-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Lee S-J (2009). The family strengths and perceptions of future parent`s role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301-311.

Lee S-J (2011).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to career maturity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 Nam, Korea.

Lee Y-J & Hyon J-W (2003).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parents' attitude toward their child upbringing and self-concep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4*(2), 29-43.

Maslow, A. H. (199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3rd ed.)*. New York: John Wile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1).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he national curriculu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4). *2014 Book of young adults*.

Oh S-Y (2012).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fficiency on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nd career maturit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ndidates of general high-school vocational high-scho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77-94.

Park M-K (2007).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ego states of at risk youths have on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Park M-Y (2003). *The relationship of environment variables, creative personality and creative th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ark S-H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ark W-S (2002).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the collegian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4*(2), 103-123.

Park W-S & Kim M-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4), 85-128.

Ryu H-S & Lee B-I (2013). The effect of creativity personality and hope influencing on career-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3*(1), 69-85.

Shin S-A & Chun J-S (2015).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mediated by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7*(3), 111-136.

Shin S-W (2013).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1), 21-44.

Song I-S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anxiety on their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Song K-H (2004). *The research of family health and family values perceived by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ju, Korea.

Song Y-J (2006).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attachment, the ego-identity and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Whang M-H & Lim E-M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3), 177-191.

Yang N-H & Hong E-S (2011).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 and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143-157.

Yang S-M & Yu Y-J (2003). Effects of self-esteem, healthiness of famil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rural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9), 121-134.

Yoon J-Y (201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e personality,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Yu Y-J (2001). *The study of family strengths*. Seoul: Gyomoon.

_____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o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Appendix 1. Factor analysis of creative personality scale

Factor & Contents Item		Factor loading
Self-conviction	I believe in my ability, and proud of me.	.78
	I have the confidence to realize my dream or hope.	.75
	No matter what they say I believe in me.	.74
	I believe that a person is required in the world.	.69
	Although I really, if poorly or fail, I If it's what they want to do.	.68
	eigenvalue=3.23, % variance=15.39%, Cronbach'α= .82	
Humor	I have quite a sense of humor.	.84
	Friends amused me.	.82
	I used to make people laugh with funny words.	.81
	I have a comedian would hear the sound that somehow.	.77
	eigenvalue=3.02, % variance=14.37%, Cronbach'α= .87	
Perseverance/tenacity	I like a difficult problem.	.87
	Delves into are solved if there is a problem not to know me.	.86
	I like a difficult thing to do.	.83
	I did until the last job once decided.	.81
	Give up as soon I won't come loose my job.	
	eigenvalue=2.52, % variance=11.98%, Cronbach'α= .86	
Openness of thinking	I would like to know about the lives of others, he said.	.82
	I'm friendly with other countries, friends and want to.	.71
	I used to be anxious to people's lives	.65
	I imagined to be a main character in a story.	.62
	eigenvalue=2.40, % variance=11.43%, Cronbach'α= .73	
Curiosity	I want to know about a marvelous animal.	.78
	Anyway I want to know how to operate a product if you see it.	.78
	I have a lot of curious about it.	.53
	eigenvalue=1.84, % variance=8.77%, Cronbach'α= .67	

Appendix 2. Factor analysis of career maturity scale

Factor & Contents Item		Factor loading
Finality	I think first of all financial sense for when choosing jobs.	.78
	I want jobs to pay us regardless of the kind of work.	.78
	Although an aptitude and want a person a decent job, even though they must not be right	.75
	Rather than rewarded when your job is comfortable to work and earn much money want the job	.75
	When choosing a job and promotion opportunities,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 first consideration.	.75
	I will work in a top job, regardless of ability or aptitude.	.75
	eigenvalue=3.74, % variance=18.70%, Cronbach'α= .87	
Conviction	Necessarily will succeed in a job that I choose faith is.	.89
	I lack confidence in myself and work.	.85
	I chose a career can succeed in the world may not confident	.77
	I am afraid we would not have the career I want	.73
	eigenvalue=3.18, % variance=15.92%, Cronbach'α= .87	
Independence	The story of another person, regardless of eventual careers they like	.87
	Determine their own job in order to live his life for his conviction	.86
	No matter what they say, should choose the work they want to do.	.83
	Will decid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set I jobs.	.81
	eigenvalue=3.14, % variance=15.72%, Cronbach'α= .89	
Determinacy	I already decided what to do what's going to.	.85
	I may change later placed, but we determine what you want to do.	.77
	Not decisions have been for certain what to do.	.60
	eigenvalue=1.95, % variance=9.74%, Cronbach'α= .74	
Preparation	When I read the newspaper, read with interest the story of a success in, I want a job.	.79
	There are many interests to get the materials relating to the data I planned.	.77
	Any kind of figure out of great job to not interested in future.	.65
	eigenvalue=1.81, % variance=9.06%, Cronbach'α= .63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청소년 진로성숙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진로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재정적 안정 4.01, 가족존중 및 애정 3.80,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3.55, 의사소통 및 유대감 3.42 순으로 중간값(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의적 인성은 자기확신 3.54, 사고의 개방성 3.46, 호기심 3.37, 유머감 3.06, 인내/끈기 3.00 순으로 중간값(3.00)보다 높거나 같았고, 진로성숙도도 3.33으로 중간값(3.00)보다 높았다.

둘째,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건강성에서는 모든 하위 영역인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과 가족건강성 전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인성에서는 하위 영역인 자기 확신, 인내/끈기, 사고의 개방성, 호기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인성 전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창의적 인성의 하위영역인 자기 확신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머감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들은 진로성숙도를 26% 설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창의적 인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11월 10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24일